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9월 13일**

요 점 히8:1-6

구약 메시지의 결론은 성전입니다.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행하는 대제사장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공간이 뜰입니다. 사56:7 이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곳으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 그래서 이 뜰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곳입니다. 언약되신 그리스도를 행하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은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메시지가 성취된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 정신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준비된 교회에는 사람이 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잠22:6 마당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는 렘넌트 운동은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토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묵상 시대라는 말은 이런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답을 확인하고 행함으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1. 요점

1) 본문 1절은 이 놀라운 우리의 대제사장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저주에서의 해방이 가능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모든 영적 문제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좌의 축복 누림이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도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며 현실에 져서는 증인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절 뒷 부분에서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그 곳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정복하여 사람을 살리고 모든 영적 문제의 머리를 깨고 24시간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기도하고 계신다

는 것입니다.

6) 2절에서는 지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모세가 지은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형과 그림자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을 따라 드려야 하고 그것을 행하는 제사장도 참 제사장이 아니요 그림자 제사장이요 모형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율법도 영원한 완성된 말씀이 아니요 몽학 선생과 같이 과정으로 주어진 모형의 법이었습니다.

7) 히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 그러므로 멜기세덱 이 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만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인간 대제사장들은 전부 모형이요 다시 세우는 일을 반복을 해야 할 사람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으로 계속 드려야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드리시므로 완전히 영원히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8) 하늘보다 높이 되신 주님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하신 곳이 마12:6, 8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억지를 부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9) 먼저 하신 말씀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율법의 결론이요 최종 결과입니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말은 나는 율법 위에 있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 나를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요5:46)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안식일 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안식일이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뜻으로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10)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내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들도 안식일 위에 있고 안식일을 누릴 것이며 또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온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셔서 성전도 나를 위해 존재하며 성전은 나를 행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26의 마지막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11)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점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저주를 정복할 수 있고 뱀의 머리를 우리가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증거가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12) 아무리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도 현실에 나타나는 증거가 없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사실은 입 다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깨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여 나를 여기서 건지시고 땅 끝까지 가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이 요점이 내게 들어와 말씀으로 자리 잡으면 정복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참 성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내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 틀린 언약을 잡고 열심히 해서는 답 없습니다. 바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 하나만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성경처럼 정복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요점이 살아서 내 안에 언약으로 뿌리 내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